개 회 사

한국의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회’가 ‘종교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라는 주제로 한국의 전통산사 7개 사찰 중 하나인 천년고찰(千年古刹) 마곡사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마음을 함께하게 되어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번학술회의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쓰신 마곡사 주지스님, 법주사 주지스님,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이해은 위원장님, 최재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추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나선화 문화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회의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12개 지자체 단체장님과 관계 공무원, 추진위원회와 7개 사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한국의 전통산사’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발표를 위해 참석해 주신 구어잔(Guo Zhan) 이코모스중국위원회 부회장님, 브리타 루돌프(Britta Rudolff) 브란덴부르크 기술대학교 교수님, 토마스 쿠만스(Thomas Coomans) 루뱅대학교 교수, 마이클 터너(Michael Turner) 베자렐 예술 아카데미 교수님, 티락 위제싱허(T.K Wijesinghe) 스리랑카 문화부 고고학 연구원님, 라나 싱(Rana Singh), 바나라스 힌두대학교 교수, 샤리프 샴즈 이몬(Sharif Shams Imon) 이코모스방글라데시위원회 위원장님,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국내외 ICOMOS 종교 유산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세계유산에 등재된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 유산의 역사적 배경, 종교유산으로써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및 세계유산 등재 후 현황 등을 조명하고 각 유산이 지니는 고유성 및 차별성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전통산사’의 종교 유산으로써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증명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산사는 삼국시대에 창건된 산지사찰이며 인간이 자연환경과 상생·조화를 바탕으로 하늘과 땅과 사람(天地人)을 일체로 하는 산세 및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 전통건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유·무형의 문화유산의 전통이 계승되고 있는 자연과 나와 깨달음이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수승한 유산이자 ‘한국의 전통산사’입니다.

오늘 국제학술회의를 통하여 세계 종교유산에 대한 이해 도모하고 ‘한국의 전통산사’가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